

# 재부에 비낀 두 의미

또 하나의 사회주의변화기로 펼쳐진 화성거리에 어둠이 깃들자 별천지, 불꽃바다가 펼쳐진다.

하늘의 은하수가 통채로 쏟아져내린듯 휘황찬란한 화성거리의 보금자리에서 단란한 저녁시간을 준비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라도 하듯 TV에서는 흥그러운 노래소리가 울려나온다.

...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웃음이 났소  
...  
문득 프랑프랑 목소리가  
즐거움의 선율을 뚝 끊어버린다.  
《엄마, 황금나무라는데 진짜  
있나?》  
다섯살짜리 딸애의 새별같은  
눈동자에는 물음표가 가득 실려  
있었다.  
황금나무!  
아직은 황금이라는 의미를  
《황금덩이와 강낭떡》과 같은  
동화세계에서나 알고있는 딸애의  
영동한 물음이 나로 하여금 무심  
히만 들어오고 불러보던 그 말을  
다시금 음미해보게 하였다.  
예로부터 값지고 귀중한것을  
황금에 비유했다.  
《시간은 황금보다 귀중하다》,  
《꽃이 고생한 황금을 주고도  
살수 없다》...

이뿐이 아니라 사회적풍요나 시대적번영도 황금에 비겨 《황금시대》, 《황금세월》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장구한 인류역사에 그 황금이 산과 벌, 바다 지어 나 무 한그루와도 어울리며 인민의 행복과 웃음, 창조와 번영의 대명사로 불려온적이 있었던가.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황금나무》...  
오직 인민의 세상, 인민의 락원인 이 땅에서만 태어날수 있는 위대하고 고귀한 부름들이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기묘함과 아름다움, 장쾌함과 웅장함을 일컫는 장관들도 허다하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 어느 시대에도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라는 말은 있어본적 없다.

별세 수십여년전 제손으로 심어가꾼 과일나무를 황금나무라 노래한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나 한알을 뚝 따서 입에다 넣으니 스리살살 녹는것이 꿀맛같다고 토로한 《황금산 라령》 등은 창조와 로동의 열매들이 인민의 행복으로 무르익어가는 이 땅에서 울린 황금산 찬가들이다.

어제 산뿐이겠는가.  
나라였던 시절 어느한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절규하던 그 별마다 황금이 삭이 물결쳐 금실금실 춤을 추며 행복을 거두어들이는 농장벌의 모습이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의 노래가락에 어려오고 이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 수사학적물음에는 황금말발에 새겨진 공화국기가 대답해준다.

산은 산마다 황금산이요, 벌은 벌마다 황금벌이듯이 《바다만풍기》의 장단에 맞추어 흰 파도 출렁이는 우리의 바다도 황금해로 불리운다.

동서해의 저 넓은 바다를 인민을 위한 거대한 양어장으로, 이것이 바로 조선의 황금해이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복락의 대명사인 이 시어들은 그대로 행복의 재부, 부강번영하는 락원을 통채로 인민에게 안겨준 사회주의

의제도의 고마움에 인민이 드리는 사회주의찬가이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 만물이 곧 황금으로 상징되는 나라.  
산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거리를 마을을 보아도 눈부시다.  
인민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위대한 태양의 광휘와 따뜻한 사랑의 빛발이 있어 이 나라는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아니 진정 온 나라가 황금처럼 빛을 뿌리는 인민을 위한 나라로 된적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 나라 지경밖을 나서면 황금은 자기의 빛을 잃는다.  
언제인가 본 자본주의나라 출판물의 글줄이 언뜻 비껴든다. 《돈만 있으면 늙가의 오리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사회》  
황금만능, 약육강식이 생존법칙으로 되어있고 정치적견이나 능력에 앞서 돈이 먼저인 미국정치적의 진면모를 폭로한 글이었다.

어제 미국만이겠는가.  
저 남조선사회가 바로 그러하

지 않은가.  
돈있는자들은 초호화주택을 여러개씩이나 가지고 흥청망청하고있을 때 민생은 그나마 차레친 판자집과 쪽방마저 불에 타 한 지에 나앉고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인정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회를 저주하며 생사준망의 기로에서 헤매고있다.  
집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940만명이나 되고 난방비가 2배 이상 올라 지난 1월에만도 제 집에서 얼어죽은 사람이 345명이 나 된다.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깃잡는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며 한가정의 가장인 노동자가 암흑의 세상을 불태우려는듯 분신자살까지 하지 않던 안되었으니 《이게 사람사는 사회냐》라는 원망과 분노가 서리치는 남조선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돈때문에 자식들에게 천대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로인고아》가 범람하고 돈이 없어 락업친 청년들이 《어른아이》로 취급되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황금의 창조자는 누구이고 소유자, 향유자는 과연 누구인가?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하고 인민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황금은 이미 그 빛을 잃었다. 변칙은 빛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의 어두운 빛으로 사람들의 시야에 안겨오고있다.

언제인가 서방의 한 언론은 《자본주의는 자기의 만성적인 불치의 병으로 하여 무덤으로 가는 로상에 있다》고 개탄한적이 있다.

황금의 두 빛갈-사랑과 중요, 광명과 암흑.  
서로 융합될수 없는 이 말속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와 가진자들의 세상인 자본주의사회의 극명한 대조가 있고 인간사랑의 천국과 인간중오의 지옥이라는 하늘땅같은 차이가 있다.

TV의 화면음악을 따라부르며 나날나를 출까지 추는 딸애에게 정겨운 시선을 주며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황금나무, 인민의 웃음이 꽃으로 피어나고 인민의 소원이 능금으로 주렁지는 그 황금나무는 내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모두의 창창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따뜻한 우리 집, 인민의 마음속에 뿌려내린 사회주의 내 조국이란다.)

박진홍



화복한 가정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피어나기 마련이다.  
온 사회가 화복한 사회주의 대가정인 공화국에서는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미덕과 미풍이 꽃피어나고있다.

**동보문의 짧은 글줄에도**  
얼마전 강제시 외통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길효진은 평양에 살고있는 친척에게 손전화기로 동보문을 써나갔다.  
《이젠 저에게 세바퀴차가 더이상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쓰거나 불시에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하반기에 마비되었던 자기를 위해 오랜 세월 사랑과 정을 기울인 한 너인의 모습이 떠올랐던것이다.

##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복한 가정

### 한가정, 친혈육이 되어

그가 가장도제신관리국로 동자 박해관과 혈육의 정을 맺은 때로부터 10여년세월이 흘렀다.  
박해관은 그의 병치료를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중앙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길효진에 대한 치료방도를 모색했고 회복치료에 필요한 운동기재와 보약재를 구해오기도 했다.  
정성이면 둘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지극한 그 마음에 떠받들려 마침내 그는 제발로 대지를 딛고설수 있었다.

그는 뚝어오르는 걱정에 예뻐 누르며 계속 써나갔다.  
《전 제발로 대지를 뚝어오고있습니》  
동보문을 길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시 내지를 걸을수 있게 된 영예군인인 크나큰 기쁨과 함께 자기를 혈육처럼 위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의 진정을 잊지 않고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의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세포군 리목축산농장으로 탄원해간 리진수가 뜻밖의 병으로 강원도종합병원에 입원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사실 그는 일찍 첫날부터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난생처음 받는 수술을 이겨낼수 있을가 하는 걱정이 앞섰고 부모와 멀리 떨어져있다는 생각으로 외롭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공연한것이였다.  
그의 곁에는 친부모 못지 않게 안락가와하며 혈육의

정을 기울인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  
농장의 일꾼들은 고향의 부모를 대신하여 수술회복을 했고 복부의과 의료일꾼들과 간호원들도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어제 이들뿐이라.  
바쁜 속에서도 매일이다싶이 찾아와 그의 곁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돌봐준 청년작업반원들도 탄원자친의 친혈육과 다름없었다.  
하기에 전장을 회복하고 병원문을 나서던 날 그는 심장으로 웅했다.  
(우리 사회, 우리 집단의 뜨거운 사랑과 정이 있어 제가 기적같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마운 제도를 받들어 저의 모든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활 과정에 무수한 선택을 하게 된다.  
아마 그중에서도 직업에 대한 선택은 가장 중요한 선택들중의 하나 일것이다.  
그러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 하는것보다 그 선택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인생이 빛난다는것을 나는 얼마전 출근길에서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청신한 아침공기 속에 마음도 즐거이 평양체육관을 지나니 나는 출근길에 오른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한 너인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의 인사에 어쨌든 미소를 띠우며 고개숙여 답례하는 너인.  
그는 바로 내가 열출전 취재실에서 만났던 중구역도로시 시설관리소의 도로관리원이였다.

가나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우대를 받고있다.  
저 아름다운 구슬다락 경무동에 입산한 행복의 주인들을 보라!  
취녀시절부터 30여년을 무케도전차 운전수로 일하며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나라의 대의원으로 성장한 너인의 모습이 보여오고 자기야 말은 초소를 지켜 수십년세월 중충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온 기관사의 모습도 어려운다.  
하나같이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들이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진 말건 자기의 애국적선택을 지켜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그 강직함과 순결함, 고결함으로 장하고 돋보이는 모습들이나.  
나의 귀전에 도로관리원의 딸이 어머니에게 했던 물음이 공명되어 울린다.  
《한번도 후회한적이 없나요?》  
이 물음에 도로관리원은, 아니 이 땅의 모든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은 자신들의 실생활로 대답하고있다.  
조국을 위한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며 그 길에는 오직 기쁨과 보람, 긍지와 영광만이 있다고!

력사에 기록된 민중들의 사랑과 응징

해방후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의 거센 파동이 울려오던 주제36(1947)년 7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일꾼으로부터 뜻밖의 기쁜 보고를 받으셨다. 그것은 강동군에서 삼태자가 출생하였다는 소식이었다.  
그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옛날부터 다태자가 출생하였다는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였고, 이번 출생한 삼태자가 잘 자라서 나라의 동량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시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세상동이의 출생에 대해 그토록 기뻐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일꾼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일꾼에게 삼태자를 잘 키우고 산모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삼태자와 산모에게 의사와 간호원을 붙여주어 그들이 삼태자와 산모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봐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삼태자가 출생한 가정의 살림형편과 주력조건을 알아보시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삼태자의 양육에 필요한 영양제와 옷과 포단을 공급해주어 아이들과 트럭이 키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이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앞으로 삼태자가 출생하면 아이들과 산모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특별히 돌봐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따사롭고 자애로운 어버이품이 있어 이 나라의 세상동이들은 생의 고고성을 터뜨린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장 행복한 복둥이들로 자라날수 있게 되었다.

애국운동, 대중운동의 위력을 떨치며

**문맹퇴치운동**

일제의 식민지우매화정책의 후과로 해방직후 북조선에는 230여만명의 성인문맹자들이 있었다.  
문맹퇴치를 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민중문화를 발전시키는 문제도,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건국사업에 동원하는 문제도 해결할수 없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문맹퇴치사업을 새로운 민주주의적문화로 건설하기 위한 선차적업으로 내세우시고 《인민문화향상은 문맹퇴치로부터!》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전제 인민을 문맹퇴치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문맹퇴치사업을 당과 국가의 지도 밑에 전사회적, 전인민적운동으로 실시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35(1946)년 11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동거농촌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 조치에 의하여 1946년 12월부터 1947년 3월까지 진행된 동거농촌문맹퇴치기간에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꾼들을 망라하여 중앙과 도, 시, 군, 면(당시)들에 문맹퇴치도원회가, 리들에 문맹퇴치반이 조직되었으며 12월부터 50살까지의 남녀문맹자들이 성인학교에서 매일 2시간이상 우리

결과 전국도처에 설치된 1만 6 000개이상의 성인학교에서 문맹을 퇴치한 사람들은 50만여명이나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성인학교를 2년제성인학교와 3년제성인학교로 하는 새로운 성인교육체제로 개편하시었고 여기에서 인민들이 글을 배우도록 하시였다.  
이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분어받은 땅에서 자기 손으로 지은 햇감자와 밀을 알알이 풀려가자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온 평강군의 리계산농민을 만나주시고 그가 아직 글을 모른다는것을 아시고는 글을 모르고서는 민주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없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석달후 리계산너섬은 문맹을 퇴치하고 제손으로 쓴 편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물리였으며 문맹퇴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전국에 호소하였다.  
이렇듯 문맹퇴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온 나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떨쳐나섬으로써 공화국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문맹자가 없는 나라로 되게 되었다.

수필

**선택과 권리를 두고**

사람들은 생활 과정에 무수한 선택을 하게 된다.  
아마 그중에서도 직업에 대한 선택은 가장 중요한 선택들중의 하나 일것이다.  
그러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 하는것보다 그 선택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인생이 빛난다는것을 나는 얼마전 출근길에서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청신한 아침공기 속에 마음도 즐거이 평양체육관을 지나니 나는 출근길에 오른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한 너인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의 인사에 어쨌든 미소를 띠우며 고개숙여 답례하는 너인.  
그는 바로 내가 열출전 취재실에서 만났던 중구역도로시 시설관리소의 도로관리원이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도로청소부는 사회의 최하층직업으로서 멸시와 천대, 조롱의 대상으로, 그들이 쓸어담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치부되고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들의 인사를 받는다는것은 서쪽에 서 해가 뜨는것만치나 바랄수 없는것이며 그들에게 호화주택이 차레진다는것은 더

평범했다.  
그러나 나는 레스럽게 하는 그의 대답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았다. 자신의 담과 열정으로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빛내여가는 사람들,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보다 사회주의대가정의 한 성원으로서의

